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기법에 관한 소고

차 호 순
(아주대학교)

Cha, Ho-Soon. (1998). Techniques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4, 117~130.

It is simply not true that anyone who can speak English can teach it. Language teaching is both a science and an art; its methods are based on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implemented by techniques. However, at a time like the present, when the scientific justification for our methods seems to be uncertain, we should concern ourselves less with theory and more with developing techniques that work with our students. The success of language teaching must be evaluated by the effectiveness of the techniques use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some useful techniques that the teacher can utilize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techniques suggested are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characteristics peculiar to children. The investigation takes into account cognitive, affective, and linguistic factors affecting specific techniques. The goal of language teaching is communication and all techniques should move toward this end. The resourceful teacher will provide techniques which exact more and more from the students and less and less from the teacher.

1. 서 론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침내 1997학년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정규과목으로 오르게 되었다. 조기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즉 교사, 학생, 교육환경, 교재, 목표어와 학생의 모국어간의 차이, 목표어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수법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며 교사가 실제로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수기법(techniques)이라 하겠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사가 효과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언어교육에서는 접근법(approach), 방법(method), 기법(technique)의 세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계층적 개념을 지닌 구성요소인 바 각기 상위개념에 바탕을 둔 의존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 Anthony(1963)에 의하면, 접근법이란 언어, 언어습득 및 언어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상관적 가정들의 집합체이다. 즉 이것은 어떠한 체계적 교수법이든지 그 기초를 두게 되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방법이란 언어교육의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언어 자료의 체계적 제시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말한다. 즉 수업계획, 교육과정, 수업시간계획 작성, 교재 선정 등 교실 밖에서 행해지는 언어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들이 바로 방법을 구성하게 되며 이것들은 모두 선택된 접근법의 이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방법은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법이란 교실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각 교사가 자신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특유의 책략들을 교실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책략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배열 모두가 상위 개념인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접근법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법은 가까이는 방법에, 멀리는 접근법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이때까지 사용해 온 여러 가지 교수법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교육에서는 결코 도외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될 요소가 바로 상황이다. 즉 어떤 특정한 방법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법은 교실에서 수행되는 실제 활동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방법은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법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절충적 활용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보다 좋은 기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및 언어학적 특성을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실용적인 기본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법의 분류

여러 사람들이 언어교육 기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연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Brown(1994:137)은 기법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는 바 조작(manipulation) 정도와 통제(control) 정도의 두 가지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조작 정도란 특정 기법이 그 성격상 고도로 조작된 것으로부터 대단히 의사소통적인 것에 이르는 연속선상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극단적으로 조작된 기법은 교사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며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기대하는 응답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학생 전체가 일제히 하는 문형 반복연습이나 구술에 의한 받아쓰기(dictation) 등이 이에 속한다. 극히 의사소통적인 기법에서는 학생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무슨 응답을 할지 예상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류에는 이야기하기와 역할놀이 등이 속한다.

통제 정도에 의한 분류는 교사가 학생의 언어습득 활동에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하느냐 하는 것이다. 통제된 기법은 교사중심적이고 조작적이며 예정된 응답을 기대하는 반면 통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법은 학생중심적이고 의사소통적이며 예정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결국 조작과 통제는 같은 맥락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Paulston과 Bruder(1976)가 문장구조 연습을 기계적(mechanical), 유의미적(meaningful) 및 의사소통적(communicative)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도 조작과 통제의 관점에서이다. 기계적 연습에서는 문장구조를 완전히 통제하도록 조작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옳은 응답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완전한 통제하에서 기계적인 연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과 관계가 없는 무

의미한 연습이 될 수도 있다. 문형 반복연습(repetition drill)이나 문장 구성 요소를 바꿔 넣는 대용연습(substitution drill)이 이에 속한다.

유의미적 연습은 그 통제 정도가 기계적 연습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옳은 응답을 기대한다. 그러나 학생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구조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연습을 완결시킬 수 없다. 이것은 이 연습이 어떤 형태의 사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독해를 위한 질의응답식 연습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의사소통적 연습은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인 언어를 습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통제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즉 어휘 사용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고 문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있다. 이 연습에서는 화자가 실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응답은 예측할 수 없다. 전화대화를 하거나 식사 주문 등 특정 상황에서의 역할놀이가 이에 속한다.

Ⅲ. 아동의 특성

1. 인지능력 발달

언어를 정규과목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이므로 본 연구와 관련된 아동의 평균연령은 9세에서 12세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Piaget (1961)의 인지 능력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s: 7~11세 또는 12세)에 속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조작이란 어떤 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정신 활동 또는 생각을 뜻한다. 구체적 조작기의 전 단계인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2~7세)에는 아동이 지각, 직관, 자기중심적 사고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구체적 조작기에 와서는 생각을 규정하는 조작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연관된다. 이 단계의 아동은 분류나 연속적 배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사물이나 사건에는 논리적 법칙을 적용하지 못한다. 즉 실제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지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법 설명과 같은 연역적 방법이나 언어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은 매우 조심

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사용 즉 언어의 의사소통적 기능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흔히 성인들이 의식하는 문법적 정확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2. 한가지에 집중하는 성향

이 연구와 관련된 아동의 평균 연령대는 사춘기(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전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Rosansky(1975:96)에 의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한번에 한가지에만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 이와 같은 융통성의 결여가 바로 언어습득을 필요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언어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도 무관심하다.

3. 기계적 습득과 유의미적 습득

Ausubel(1963)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기계적 암기식 습득(*rote learning*)과 의미를 생각하는 유의미적 습득(*meaningful learning*)을 구별하면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은 기존 지식이나 경험과 관련이 없는 기계적 암기식 습득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지식은 인지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기존 지식에 연관시킴으로써 습득된다고 주장한다. 아동도 이와 같이 단순한 기계적 습득, 즉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반복과 흉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Paulston과 Bruder의 유의미적 연습과 더불어 언어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의미적 습득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의 언어습득에 있어서 모방(*imitation*)이 갖는 책략상의 중요성이다. 물론 모방은 아동의 언어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습득 책략중 하나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어떠한 종류의 모방이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동은 언어습득 초기단계에서는 의미를 분류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보다는 소리에 유의하면서 언어의 표면구조를 반복하거나 흉내내는 책략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아동이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주로 언어의 심층구조 곧 의미에 유의하면서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cNeill(1966:69)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실례는 아동의 유의미적 모방을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 아이가 "Nobody don't like me."라고 했을 때 엄마가 "Nobody likes me."라고 하면서 고쳐주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덟 번이나 같은 표현을 고집하다가 마침내 "Oh! Nobody don't likes me."라고 하면서 겨우 "likes"라는 작은 수정외에는 계속해서 이중부정 형태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엄마는 표면적인 문법 형태에만 유의했지만 아이는 의미에 집착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4.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

아동은 감각적 자극에 민감하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언어습득 활동은 아동의 모든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및 후각의 오감과 연관된 보조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육체적 활동을 가미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보상에 대한 기대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기뻐한다. 또한 이것이 자극이 되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기대감에서 새로운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구체적인 감각적 자극에 민감한 아동에게 더욱 그러하다. 아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기대할 수 있으면 모든 노력을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이 언어교육에 대해 갖는 의의는 크다고 생각한다.

6. 언어습득과 문화의 이해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시켜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언어습득에는 목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의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정서, 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언어와 문화는 각기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열이 있을 수 없고 상대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정 언어와

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 편견, 부정적 태도 등은 그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평등의식은 세계주의적 사고의 함양과 더불어 모국어와 모문화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인식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고와 인식은 관념적이 아닌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7. 모국어의 간섭

제2언어 습득자의 언어 사용에 모국어 구조의 영향이 나타나는 현상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규명되어 있다. 학생의 모국어에 유사한 구조가 있을 때 이 지식은 긍정적으로 전이되어 언어습득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그 구조가 상이할 경우 부정적 전이가 이루어져 방해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해현상은 Taylor(1975)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어른의 경우 제2언어 습득 기간이 짧은 초기 단계에서 다른 때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이미 모국어 구조에 숙달해 있으므로 그것에 의존하여 영어를 표현하려는 책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모문화의 간섭이 원인이 되어 언어적 방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최용재(1997) 참조). 이러한 현상은 어휘사용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순전히 언어구조에 의한 방해현상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IV. 기본적 교수기법

위에서 아동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보고 언어습득과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문법과 같은 언어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 즉 의사소통에 생각을 집중한다.

- (2) 아동은 사고의 융통성이 부족하므로 언어습득 과정에서 한번에 한가지 항목에만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
- (3) 아동은 자신이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언어입력을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즉 이들은 언어의 형태를 명확히 분석하지 않는다.
- (4) 아동은 기계적 암기식 모방으로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주로 언어의 의미에 유의하면서 습득한다.
- (5) 아동은 감각적 교수기법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 (6) 아동의 경우 성공적인 언어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주면 그것은 언어습득에 강화 요인이 된다.
- (7) 언어교육에 문화적 이해를 가미시키고 두 문화간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8) 모국어와 모문화의 간섭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을 초대로 하여 조기 영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일반적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차후의 기법 개발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첫째로, 많은 교사들이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문법규칙을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추상적이며 형식 논리에 치우친 설명은 아동들에게 혼돈만 주게 됨으로 금물이다. 특정 문법구조를 이해시키려면 특이한 점을 간단히 지적하거나 모국어 구조와 대조하면서 쉽게 설명하고 그림 따위의 보조물 또는 실제 행동을 통한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문법은 형태(form)와 관계가 있고 의사소통은 의미(meaning)와 관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는 일이다. 문법은 물론 형태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정 문법구조와 관련된 의미와 그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측면(use)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진행형은 그 형태가 어떠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단순 현재형보다 현재진행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가르쳐야 한다.

둘째로, 이 시기의 아동은 분류와 연속적 배열의 능력이 있으므로 어휘 교육에 있어서 일반적(general) 의미를 지닌 단어와 특정적(specific) 의미를 지

년 단어의 구별을 취급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유의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연습문제는 이러한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1. general word에 속하는 specific word를 찾는 문제

(Find five specific words that can be substituted for the general ones.)

Example : *clothes* - suit, dress, coat, hat, blouse

- a. furniture
- b. sports
- c. animals
- d. nations

2. specific word에 속하는 general word를 찾는 문제

(Find one general word for each list of specific words.)

Example : suit, dress, coat, hat, blouse - *clothes*

- a. dollar, quarter, dime, nickel, penny
- b. bake, fry, boil, broil, roast
- c. apple, pear, peach, orange, mango
- d. red, blue, green, gray, tan

3. specific word를 찾아 문장에서 사용하는 연습문제

(Find a specific word for each of the general ones below and use it in a sentence, underlining the specific word.)

Example : game. We played *baseball*.

- a. tree
- b. flower
- c. food
- d. bird

셋째로, 아동은 한번에 한가지에만 집중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언어교육에 있어서도 한번에 하나의 새로운 문법구조만 소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시제에 대해 가르친다고 할 때 한번에 모든 시제를 다 가르치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아동이 그것을 이해하겠는가? 아동에게는 구조가 단순하고 사용 빈도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단순 현재형, 현재진행형, 단순 과거형, 과거진행형, 미래형 등의 순서로 한번에 하나씩 가르쳐야 한다.

셋째로, 새로운 문법구조 형태에 익숙하려면 충분한 연습(practice)이 필요한데 아동의 경우 반복(repetition)과 대용(substitution) 연습이 효과적이다. 물론 이런 종류의 연습은 기계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학생들을 지루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학생들이 연습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유의미적 요소를 가미시킴으로써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반복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의 본보기를 주의 깊게 듣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대로 따라 정확하게 반복한다. 반복연습 뒤에는 곧 대용연습이 따르는 것이 좋다. 대용연습은 새로운 문법구조의 형태를 숙달하기 위한 강화책이 될 뿐만 아니라 제한된 구문내에서 여러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이제 방금 현재진행형("I'm walking." 등)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반복연습을 했다고 하자. 그 다음에는 여러가지 동사를 가지고 대용연습을 한다. "I'm walking."이라는 기본문형을 주고 *work*를 대용하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I'm working."이라고 응답하게 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read*, *write*, *talk*, *run* 등을 대용하게 하며 연습을 계속한다. 이 연습을 보다 다양하게 하려면 주어 *I* 대신 *he*, *she*, *we*, *they* 등을 대용하면서 연습할 수도 있다. 대용연습의 장점은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모든 수준의 학생들에게 쉽게 각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연습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흥미로운 연습이다.

다섯째로, 언어습득에 있어서 문법에 대한 지식은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아동의 경우 언어의 형태적 양상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언어를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수업의 대부분을 언어의 실제 사용 즉 의사소통적 기능에 할애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환경을 가능한 한 실생활과 가깝도록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교사는 수업 중에 간간히 실생활에서 자주 쓰

이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습득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Excuse me." "Pardon me." "I'm sorry I'm late." "How are you doing?" "What's the matter?" 등의 말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학생들은 어휘나 문법구조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그것의 실용성 때문에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또한 어휘에 대한 연습을 하다가 *apple*이나 *doctor*란 단어가 나올 때 교사가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라고 말한다면 어느 학생이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는가. 교사가 영어로 말할 때 학생들은 늘 귀담아 듣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언어입력은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흥미로워야 한다.

의사소통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오류(error)의 발생과 그것의 수정 문제가 대두된다. 교사는 학생이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즉시 고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오류수정을 과도하게 하면 학생의 의사소통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오류는 고쳐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소한 오류는 필요에 따라 묵인하거나 교사가 정확한 형태를 간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의사소통활동이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He *swimmed* fast."라든지 "The baby has three *tooths*."와 같은 어형 변화와 관련된 오류는 의사소통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오류는 언어습득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용서 못할 잘못이 아니라 학습자가 영어의 문법규칙에 대해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책략까지 쓰면서 능동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여섯째로, 아동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은 육체적인 활동으로서, 역할놀이나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TPR(Total Physical Response) 활동을 하는 것이다. TPR은 언어와 육체적 활동의 결합을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Stand up." "Sit down." "Open the door." "Close the window." 등의 명령문을 사용하여 동작이 수반되게 하는 것이다. TPR을 개발한 Asher(1977:43)의 말처럼 교사는 학생들이 배우가 되는 연극의 감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시청각 보조자료 뿐만 아니라 오감을 모두 자극할 수 있는 실물 보조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제스처나 얼굴 표정 등 언어외적 수단을 적절히 구사하여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문화 특유의 관습적 요소가 많은 것이므로 숙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유념해야 한다.

일곱째로, 학생이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잘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모든 연령층에 대해 효과적인 것이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칭찬은 격려가 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민감한 아동에게는 이러한 보상이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동에 효과적인 보상으로는 말로 하는 칭찬과 시각을 통한 칭찬을 생각할 수 있다. 학생이 잘 했을 때 “Very good.”과 같은 간단한 칭찬을 귀로 직접 듣게 되면 그렇게 호뭇한 일이 없을 것이다. 시각을 통한 칭찬은 잘 한 과제에 대해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 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시각적 보상은 오래 보존하며 즐거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여덟째로,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언어교육을 위해 목표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이 그들의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 말과 함께 가르쳐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는 언어의 용법(usage)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언어의 실제 사용(use)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영어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용어(인사, 작별, 소개, 칭찬, 사과, 전화통화 등을 할 때 쓰는 표현)라든지 몸짓, 도량형, 화폐 등 문화적 특성이 담긴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홉째로, 모국어의 방해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중고교생들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국어 방해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초등학교생들의 영어 습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사려가 깊은 교사라면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하여 수업 준비를 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He is *seeing* the picture.”나 “He’s *hearing* the radio.”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바로 우리 말에서 “보다”와 “듣다”의 두 지각동사는 정태적(static) 의미와 동태적(dynamic) 의미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see”와 “look” 그리고

“hear”와 “listen”을 구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말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결부하여 생각해야 할 점은, 어휘를 바로 선택했다고 해도 이번에는 전치사를 빼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look”나 “listen”에는 전치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모르고 모국어 구조만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려면 “look”와 “at” 그리고 “listen”과 “to”를 분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look at”나 “listen to”와 같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가르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모국어의 방해현상을 유념한다면 효과적인 교수기법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V. 결 론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환경 곧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같은 환경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교실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환경을 어떻게 하면 실생활의 자연적인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열쇠를 바로 교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지 쓸 수 있는 권한과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영어교육은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육환경에 다 부합되는 교수법이란 있을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교수전략 즉 기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는 데 교육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교수기법의 활용은 전적으로 교사의 몫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교수기법은 이러한 방향으로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교재에 수록된 내용만 가르치는 정적인 교육을 목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교재의 내용은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려가 깊고 기략이 풍부한 교사라면 교재의 내용을 필요에 맞게 보완할 수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온갖 기법을 활용하며 또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연구에서 제시된 것은 극히 초보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됨으로 앞으로 연구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교육환경 개선, 교재 개발 등 중요한 분야가 많지만 당장 시급한 일이 효과적인 교수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교사의 자질향상이라 하겠다. 그것은 효과적인 교수기법의 활용능력이 영어교육의 여타 성공요인의 미비점을 크게 보충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최용재. (1997). 외국어로서의 영작문에 있어서 모문화의 간섭. *영어어문교육*, 3, 1-12.
- Anthony, Edward. (1963). Approach, method, technique. *English Language Teaching*, 17, 63-67.
- Asher, James. (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 The Complete Teacher's Guidebook*. Los Gatos, CA : Sky Oaks Productions.
- Ausubel, David A. (1963). Cognitive structure and the facilitation of meaningful verbal learn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14, 217-221.
- Brown, H. Douglas. (1994).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Ea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McNeill, David. (1966).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rank Smith and George 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 A psycholinguistic approach*. Cambridge, MA : M.I.T. Press.
- Paulston, Christina B & Bruder, Mary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ss.: Winthrop.
- Piaget, J. (1961). The stages of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the child. *Bulletin of the Menninger School of Psychiatry (March 6)*.
- Taylor, B. P. (1975). The use of overgeneralization and transfer learning strategies by elementary and intermediate students in ESL. *Language Learning*, 25, 73-108.